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상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The impacts of Small and Medium-sized Bank Loan on Bank's Equity Ratio and Performance in Korean Banking Industry

Sang-Wook Le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은행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가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에 유의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의 분석에서는 모든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경영성과 분석에서는 일부 경영성과 지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은행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는 금융위기 전후에 걸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 분석에서는 모든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경영성과 분석에서는 일부 지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기본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이 BIS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기본 자기자본비율 뿐 아니라 BIS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본 연구는 은행의 기업의 자금중개기능 측면 및 은행 대출자산 구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은행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 결정요인, 중소기업대출 기법 중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존 은행 중소기업대출 연구에 새로운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계 변화 및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등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bank loans and bank's equity ratio, as well as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bank loans and bank's performance in Korean banking industry. Using the data from the Bank of Korea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e made a panel data set, including small and medium corporate loan ratio, BIS ration, basic equity ratio, performance ratio, etc.

We found a positive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loans and bank's equity ratio. There was a positive change of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pre-financial crisis and post-financial crisis periods. In the post-financial crisis period,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bank loan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the bank's equity ratio and bank's performance. We expect that these results will give new insights and contribute to the already-existing knowledge as well as to the Korean government institutions that are interested in the impact of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bank loans.

Keywords : Small & Medium-sized Corporate Loan, Bank's Equity Ratio, Bank Performance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 Sang-Wook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el: +82-2-970-6439 email: leesw@seoultech.ac.kr

Received October 21, 2016

Revised (1st November 21, 2016, 2nd December 14, 2016, 3rd December 19, 2016)

Accepted February 3,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 및 금융시장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 최대의 외부자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에서 높은 은행 대출 의존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을 선호하며,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은행은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 대출자산 운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 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은행 경영 관점에서 중요한 판단요소이다.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은행 관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경험하면서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정부도 담보위주의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금융, 관계금융 활성화 등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보였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대출 현황, 선행연구 등을 정리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과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한다.

2. 현황 및 가설설정

2.1 중소기업대출 현황

다음 [Table 1]은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현황을 정리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권 대출에서 약 42~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기업대출에서도 중소기업대출은 약 74~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1.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Bank Loan Ratio

	Mar 2016	Dec 2015	Sep 2015	June 2015	Mar 2015
S&M Loan /Bank Loan	42.8%	42.6%	43.1%	42.9%	42.1%
S&M Loan /Corporate Loan	76.4%	76.3%	75.9%	75.5%	74.6%

Sourc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2 관련 선행연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행태 결정요인, 중소기업 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 중소기업 대출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 Diamond(1991)은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반면, 은행은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중소)기업으로의 대출을 기피한다고 하였다. [2] 이진희, 정상진(2014)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행태별 연구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 형태별 중소기업 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3] 김문겸, 이규옥, 김순철(2011) 관계형 은행대출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 Strahan and Weston(1998)은 소규모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5] 동학림, 김문겸은 관계형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에 많이 활용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6] Berger and Udell(1998)은 중소기업들이 관계형 대출에 의존한다고 평가하였다.

2.3 가설 설정

은행은 소규모 기업으로의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업으로의 대출을 늘리기 보다는 이들 중소기업 규모의 기

업들과의 대출거래 관계를 통해 은행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현황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은행 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은 상당히 큰 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경영성과 및 자기자본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자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 [연구가설 1]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경기 호황과 은행 간 대출경쟁의 심화 등으로 우리나라 은행대출은 가계 및 부동산 대출로의 편중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대출자산 운용의 수익원으로 중소기업으로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이용한 효율적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정책당국도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관계형 금융을,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제도 도입을 통해 각각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보였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 중소기업 대출 변화는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많은 변화를 유발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연구가설 2]를 설정한다.

[연구가설 2]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3. 실증분석

3.1 연구모형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 (1), (2)의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식 (1)은 [연구가설 1]의 검증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중소기업대출은 직전분기의 자료($CL_{i,t}$)를 이용하였다. 이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역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식 (2)는 [연구가설 2]의 검증을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가 금융위기 전후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식 (2)는 식 (1)에 금융위기 이후 더미 변수(Af), 금융위기이후 더미 변수와 직전분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곱한 교차변수($Af*CL_{i,t}$)를 추가로 설정한 모형이다. 금융위기 이후 더미 변수(Af)는 2009년 3분기 이후이면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식 (1) 중소기업대출의 추정계수($CL_{i,t}$)가 유의한 값을 보일 것이다. 또한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금융위기 이후 은행 중소기업대출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관계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식 (2)의 교차변수($Af*CL_{i,t}$)가 유의한 부호를 보일 것이다.

$$FS \text{ or } Per_{i,t} = \alpha_0 + \alpha_1 CL_{i,t-1} + \alpha_2 BkSz_{i,t} + \alpha_3 Gap_{i,t} + \alpha_4 Npl_{i,t} + qtdm_t \delta + \epsilon_{i,t} \quad (1)$$

$$FS \text{ or } Per_{i,t} = \beta_0 + \beta_1 CL_{i,t-1} + \beta_2 Af_{i,t} + \beta_3 Af*CL_{i,t-1} + \beta_4 BkSz_{i,t} + \beta_5 Gap_{i,t} + \beta_6 Npl_{i,t} + qtdm_t \delta + \epsilon_{i,t} \quad (2)$$

중속변수는 은행의 재무건전성(FS)을 의미하는 변수로 ① BIS 자기자본비율(BIS), ② 기본 자기자본비율(Beq) 이용하였으며, 경영성과(Per)는 은행의 총자산대비 당기손익의 비율(ROA), 총자산대비 이자비용 및 세금 차감전 순이익(EBIT)을 이용하였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서 BIS(국제결제은행)에 의해 권고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다. 기본 자기자본비율(Beq)의 분모는 BIS자기자본비율과 동일한 위험가중자산을 사용하되 분자는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 자기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행의 총자산대비 당기손익(ROA)은 은행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은행이 보유한 총자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당기손익을 실현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자비용 및 세전 순이익(EBIT)은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 설명변수로서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은행의 기업 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하였다. 설명변수로서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전분기말 중소기업대출 비중(CL₁)을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선정하였다. 먼저 은행의 규모(BkSz)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은행의 규모는 은행 총자산의 로그 값을 이용하였다. [7] Boyd and Runkle(1993)은 은행의 규모는 은행의 위험과 역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다음 은행의 예대금리차(Gap)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은행의 예대금리차(Gap)은 은행 대출시장의 경쟁정도를 반영하고 은행대출 시장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8] 강중구(2010)는 은행 간 시장점유율 경쟁정도가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대출과 예금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는 높이면서 예대금리차가 축소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은행대출 시장의 경쟁도, 시장 경제적 상황이 은행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은행 예대금리차(Gap)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부실대출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대출비율(Npl)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9] Elyas and Ling(2015)은 부실대출과 은행 경영성과에 유의적 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고정이하 대출비율은 은행의 대출 가운데 고정이하로 분류한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한다. 그 이외 통제하지 못하는 거시 경제적 요인 또는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분기더미(qtdm)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패널 모형에서 존재하는 개별 은행의 고유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이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패널자료는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이용하는 것은 [10] Hausman test(1978) 결과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2 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 자료가 입수 가능한 2005년 4분기부터 2014년 6월까지 분기별 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4분기 및 2009년 1~2분기는 제외하였다. 자료 입수가 어려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에 이용된 변수 관련 자료 산정이 어려운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91개의 분기별 은행 자료를 이용하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 이용한 변수를 중심으로 기초통계를 정리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BIS	13.673	13.71	1.836
Beq	6.990	6.58	1.987
ROA	0.167	0.164	0.151
EBIT	0.230	0.225	0.180
CL	0.824	0.873	0.159
BkSz	13.218	13.428	1.259
Gap	3.104	3.13	0.766
Npl	1.390	1.29	0.619

3.3 실증분석 결과

3.3.1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

다음 [Table 3]은 은행 중소기업대출 비중과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3]의 첫번째 열은 종속변수가 은행 자기자본비율인 경우, 두 번째 열은 종속변수가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인 경우, 세 번째 열은 종속변수가 ROA인 경우, 네 번째 열은 종속변수가 EBIT인 경우의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수가 은행 기본 자기자본비율(Beq),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BIS)인 경우 중소기업대출 비중(CL₁)이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종속변수가 은행 경영성과의 경우에는 일부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가 ROA인 경우에는 중소기업대출 비중(CL₁)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나타내는 반면, 종속변수가 EBIT인 경우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반면, 은행 중소기업대출 비중 증가에 따라 은행의 경영성과는 영업성과 측면에서만 유의한 개선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은행 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영업 경영성과의 개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영업 성과에는 유의한 개선을 보이는

반면, 은행 전체 경영성과 개선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경영성과 누적 결과가 반영된 자기자본비율 개선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실증분석을 통해 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측면에서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지만, 은행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연구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 & Medium Corporate Loan and Bank Equity-Performance

Variable	Beq	BIS	ROA	EBIT
CL ₁	6.424*** (0.000)	6.648*** (0.000)	0.226 (0.234)	0.445** (0.049)
BkSz	-2.400*** (0.000)	-4.080*** (0.000)	-0.009 (0.910)	-0.110 (0.250)
Gap	0.050 (0.640)	-0.385** (0.038)	0.026 (0.234)	0.075*** (0.004)
Npl	-0.523*** (0.000)	-0.419*** (0.002)	-0.078*** (0.000)	-0.083*** (0.000)
Constnat	Included			
Time Dummy	Included			
Within-Rsq	0.443	0.633	0.464	0.450
Hausman test(Chi2)	92.25	41.96	-17.58	-5.31
no. of Obs	391			

Note: 1)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2) The P-value of two-tail test is reported in parentheses.

3.3.2 금융위기 전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

[Table 4]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과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에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4]는 [연구모형 2]를 이용하여 [연구가설 2]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속변수가 자기자본 비율인 경우에는 모든 분석결과에서 교차변수(Af*CL₁)가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경영성과인 경우에는 ROA의 경우에만 교차변수(Af*CL₁)가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가 EBIT의 경우에는 교차변수(Af*CL₁)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은행 중소기업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영업성과(EBIT)보다는 총체적 경영성과(ROA)에서 유의한 개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4]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은행 중소기업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 중소기업대출이 은행 기본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 중소기업대출이 은행 기본 자기자본비율 및 BIS자기자본비율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 중소기업대출이 은행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ROA 지표를 이용한 경영성과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Small & Medium Corporate Loan and Bank Equity-Performanc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eq	BIS	ROA	EBIT
CL ₁	-2.874*** (0.001)	-2.219 (0.190)	-0.409* (0.059)	0.332 (0.214)
Af	-4.544*** (0.000)	-2.367*** (0.001)	-0.617*** (0.000)	-0.120 (0.303)
Af*CL ₁	7.766*** (0.000)	7.406*** (0.000)	0.532*** (0.000)	0.094 (0.432)
BkSz	-4.070*** (0.000)	-5.673*** (0.000)	-0.123 (0.124)	-0.130 (0.189)
Gap	0.498*** (0.000)	0.042 (0.805)	0.057*** (0.009)	0.080*** (0.003)
Npl	-0.395*** (0.000)	-0.297** (0.015)	-0.069*** (0.000)	-0.082*** (0.000)
Constant	Included			
Time Dummy	Included			
Within-Rsq	0.740	0.713	0.507	0.451
Hausman test(Chi2)	164.59	76.67	8.32	-2.30
Obs.	391			

Note: 1)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2) The P-value of two-tail test is reported in parentheses.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은행 자기자본비율, 일부 경영성과 지표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은행 중소기업 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는 금융위기 전후에 걸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영업측면의 경영성과 지표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뚜렷한 개선의 효과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본 연구는 은행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출이 중요하며, 이러한 중소기업 대출을 통한 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 등은 중요한 과제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은행 중소기업 대출과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유의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ROA 측면의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강화와 함께 금융정책 당국의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은행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대출 행태 결정요인, 중소기업대출 기법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연구와 차별적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소기업 대출제도와 관련된 직접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References

- [1] Diamond, D. W., Monitoring and Reputation: The Choice between Bank Loans and Directly Placed Deb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9, pp. 689-721, 1991.
DOI: <https://doi.org/10.1086/261775>
- [2] Lee, H. K., Jung, S. J., "A Comparative Study on Loans to SMEs by Bank Typ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36, pp.73-87, 2014.
- [3] Kim, M. K., Lee, K. O., Kim, S. C., "Effect of Relationship Banking on Financing Cost and Performance of SME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33, pp. 173-194, 2011.
- [4] Strahan, P. E., Weston, J. P. "Small business lending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22, pp. 21-845,

1998.

DOI: [https://doi.org/10.1016/S0378-4266\(98\)00010-7](https://doi.org/10.1016/S0378-4266(98)00010-7)

- [5] Dong, H. K., Kim, M. K., "The Effect of Relationship Banking on SME Financial Focusing on Credit Availability and Loan Ratio",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35, pp. 173-194, 2013.
- [6] Berger, A. N., and G. F. Udell, 'Relationship Lending and Lines of Credit in Small Firm Finance', *The Journal of Business*, vol. 68, pp. 351-381, 1995.
DOI: <https://doi.org/10.1086/296668>
- [7] Boyd, J. H., Runkle, D. E., Size and Performance of Banking Firm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31, pp. 47-67, 1993.
DOI: [https://doi.org/10.1016/0304-3932\(93\)90016-9](https://doi.org/10.1016/0304-3932(93)90016-9)
- [8] Kang, J. K.,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Banks' Wholesale Funding Ratio", *Kukje Kyungje Yongu*, vol. 16, pp. 21-49, 2010.
DOI: <https://doi.org/10.17298/kky.2010.16.3.002>
- [9] Elyas, K., "Bank holding company performance , risk, and busy board of directo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60, pp. 239-251, 2015.
DOI: <https://doi.org/10.1016/j.jbankfin.2015.08.022>
- [10] Hausman, J. A.,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vol. 46, pp. 1251-1271, 1978.
DOI: <https://doi.org/10.2307/1913827>

이 상 욱(SangWook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1993년 1월 ~ 2008년 2월 : 한국 은행 차장
- 2008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

<관심분야>

금융기관(은행) 경영, 은행과 기업관계, 회계 등